



## 희망방정식

온갖 어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가운데 인쇄업계는 새해 첫 달을 담담하게 보냈다.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쇄업계 역시 변화와 발전, 질곡의 소용돌이와 아우르면서 숨가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오랫동안 인쇄인들이 힘을 모아 추진해 온 인쇄문화산업진흥법이 지난해 6월 20일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12월 18일에 동법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올 1월 20일부터 드디어 효력을 발생하기에 이르렀다.

법률의 내용이나 성격에 대해 업계일각에서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인쇄문화산업분야의 단독법률을 지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인쇄관련산업의 위상강화와 함께 문화산업적인 측면에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본은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적지않은 인쇄인들이 법이나 시행령의 내용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동법의 주요 내용은 전문인력의 양성, 인쇄시설의 현대화 지원,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시장 확대, 인쇄물 및 인쇄기자재에 관한 연구사업의 지원, 인쇄협동화사업의 지원, 인쇄물 품질향상에 관한 사업지원 등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쇄관련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인쇄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토록 되어있다.

그렇다고 해서 법조문이 만능은 아니다. 법률내용에

우리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시대흐름을 이끈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배워왔다. 아무쪼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발효를 계기로 인쇄관련업계가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문제점을 용광로에 대입시킨 희망방정식을 함께 풀어나가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결맞는 제도적 장치나 확실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모래위의 누각 신세로 효용성을 잃을 수 밖에 없다. 무엇보다 먼저 인쇄업계의 단결된 힘과 응집된 노력의 결실이 뒷받침되어야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법률지원체계가 정착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여기에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입김이나 논공행상보다는 오로지 인쇄관련업계의 성장을 향한 공동목표에만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행동하는 개인이나 조직이 시대흐름을 이끈다는 사실을 역사적 교훈을 통해 배워왔다. 아무쪼록 인쇄문화산업진흥법 발효를 계기로 인쇄관련업계가 잠재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문제점을 용광로에 대입시킨 희망방정식을 함께 풀어나가기를 학수고대해 본다.

오세익 · 편집주간